‘아길라르’ 침투패스로 제주 첫 승 가나

아길라르. 사진=제주유나이티드 제공

23일 대전과 K리그2 3라운드 경기 진행
강한 압박 뚫을 아길라르의 킬패스 관건

제주유나이티드(이하 제주)가 오는 23일 오후 4시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하나원큐 K리그2 2020 3라운드 홈경기에서 대전과 격돌한다.

지난 9일 홈 개막전에서 서울이랜드와 1-1 무승부를 기록했던 제주는 16일 전남 원정에서 0-1로 패하면서 예상치 못한 부진에 빠졌다.

다음 상대는 ‘또 다른 우승후보’로 손꼽혔던 대전이다. 이번 시즌을 앞두고 기업구단으로 탈바꿈한 대전은 황선홍 감독 지휘 아래 1부리그급 스쿼드를 구축했다.

남기일 감독은 “이번 경기는 지금의 흐름을 반전시킬 수 있는 승부처인 동시에 무엇보다 팬들이 원하는 매치업이다. 아무래도 2경기 동안 승수 쌓기에 실패했기 때문에 선수들의 심리적인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면서 “부상자도 있지만 대체 선수들도 경쟁력이 있어 심리적인 부분을 더 세심히 관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경기 양상도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깊게 내려앉아 수비 한 뒤 역습을 취하는 형태를 가져갔던 기존의 상대와 달리 대전은 전체적인 라인을 올리며 제주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2선에서 수비 뒷공간을 무너뜨리는 침투패스가 중요하다. 이를 수행할 적임자로 왼발 패스가 정교한 ‘승리의 설계자’ 아길라르가 꼽히고 있다.

아길라르는 올 시즌 키패스 5개(팀 내 1위)를 전방으로 배달했다. 압박의 수위를 높인 상대 수비를 유인하면서 생긴 공간을 향해 패스를 원활하게 내준다면 아길라르의 장점인 어시스트 생산 능력은 뚜렷해질 수 있다.

남 감독은 “아길라르는 장점이 많은 선수”라며 “특히 상대 파이널서드에서 치명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 키패스를 뿌려주고, 과감하게 슛까지 때려준다면 공격의 활로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현대카드 슈퍼매치 포스터.

우즈와 미컬슨 경기 포스터. 연합뉴스

골프 빅매치… 주말엔 집에서 경기 보자

24일 고진영 vs 박성현
25일 우즈 vs 미컬슨
두 대회 상금은 기부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 주요 골프 투어가 전면 중단된 가운데 모처럼 골프 팬들의 가슴을 뛰게 할 ‘빅 매치’들이 연달아 펼쳐진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가 14일부터 나흘간 메이저 대회인 제42회 KLPGA 챔피언십을 무관중 경기로 개최, 박현경(20)을 새로운 ‘메이저 퀸’으로 탄생시킨 데이어 24일부터 세계적인 남녀 톱 랭커들의 이벤트 매치가 줄을 잇는다.

먼저 24일 오후 2시 인천 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에서는 ‘현대카드 슈퍼매치 고진영 vs 박성현’ 경기가 열린다.

고진영(25)과 박성현(27)은 설명이 따로 필요 없는 현역 여자 선수 최강자들이다.

현재 세계 랭킹은 고진영이 1위, 박성현이 3위다.

박성현이 2017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올해의 선수에 선정됐고 고진영은 지난해 올해의 선수 타이틀을 차지했다.

정교한 아이언샷이 주특기인 고진영과 특유의 공격적인 스타일의 박성현이 벌이는 이 날 맞대결은 상금이 걸린 각 홀에서 타수가 낮은 선수가 상금을 가져가는 ‘스킨스 게임’ 형식으로 열린다.

총상금은 1억원이며 경기가 끝난 뒤 선수들이 지정한 기부처에 자선기금으로 쓸 예정이다.

한국 시간으로 25일 오전 4시에는 타이거 우즈와 필 미컬슨(이상 미국)이 벌이는 ‘더 매치 : 챔피언스 포 채리티(The Match: Champions for Charity)’가 미국 플로리다주 메달리스트 골프클럽에서 열린다.

이번에는 미국프로풋볼(NFL)의 ‘전설’로 불리는 페이턴 매닝과 톰 브래디가 함께하는 팀 이벤트가 마련됐다. 우즈가 매닝과 한 편을 이루고, 미컬슨은 브래디와 호흡을 맞춘다.

이번 대회를 통해 1000만달러(약 123억원)의 기금을 마련해 코로나19 성금으로 기부한다. 연합뉴스

영국 여자축구 이대로 종료
지소연·조소현 복귀 안한다

잉글랜드 여자축구 무대를 누비다 코로나19로 귀국한 지소연(29·첼시)과 조소현(32·웨스트햄)이 당분간 소속팀 복귀를 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영국 방송 BBC 인터넷판은 잉글랜드 여자슈퍼리그(WSL)와 여자챔피언십(2부 리그)이 재개 없이 2019-2020시즌을 종료할 것으로 보인다고 21일(한국시간) 보도했다.

BBC에 따르면 잉글랜드축구협회(FA)는 조만간 시즌 종료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문을 각 구단에 보낼 예정이다. 또 WSL과 여자챔피언십은 각각 최종 순위를 어떻게 확정할지를 결정할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FA 관계자는 BBC를 통해 “여자축구 리그 종료와 관련해 여전히 구단들과 논의가 진행 중”이라면서도 “시즌을 완주하는 데에 작지 않은 걸림돌들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WSL은 지난 3월 13일 프리미어리그를 비롯한 잉글랜드 모든 프로축구 경기가 중단돼 열리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지소연과 조소현은 지난 4월 초 귀국했고, 맨체스터시티 소속인 이금민(26)도 비슷한 시기 귀국했다.

한편, 이대로 시즌이 종료된다면 어떤 팀을 1위로 인정할지를 두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연합뉴스

두산 선발 유희관 역투 21일 오후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0 KBO리그 두산 대 NC 경기에서 두산 선발 유희관이 역투하고 있다. 연합뉴스

KBO 호령하던 간판타자… 올해는 부진

최정, 타자 중 타율 최하위
박병호, 최다 삼진 2위 기록

프로야구 KBO리그를 호령하던 간판타자들이 집단 부진에 빠졌다.

SK 와이번스 최정(33), 키움 히어로즈 박병호(34), 한화 이글스 김태균(38) 등 지난 시즌까지 맹활약을 펼치며 팀 타선을 이끌었던 30대 중심타자들은 올 시즌 초반 지독한 슬럼프에 고개를 숙이고 있다.

지난 시즌 타율 0.292, 26홈런, 99타점을 기록했던 SK 주장 최정은 부진을 거듭하다 타율 최하위까지 밀려났다. 그는 21일 오전 현재 13경기 43타수 8안타 타율 0.140에 그치고 있다. 규정타석을 채운 63명의 타자 중 타율, 장타율(0.256)이 모두 최하위다.

SK 염경엽 감독은 최근 최정을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하는 등 여러 가지 조처를 했지만, 최정의 타격감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그는 21일 키움 히어로즈와 경기에서도 5타수 무안타 삼진 3개를 기록했다.

정규시즌을 앞두고 펼친 청백전과 연습경기 때까지만 해도 나쁘지 않은 성적을 거뒀던 터라 더 아쉽다.

지난 시즌 홈런왕 키움 히어로즈의 박병호는 삼진왕으로 변했다.

지난 시즌 122경기에서 타율 0.280, 33홈런, 98타점을 기록했던 박병호는 올 시즌 타율 0.180으로 부진하다.

규정타석을 채운 타자 중 박병호보다 타율이 낮은 선수는 LG 트윈스 오지환(0.171)과 최정 뿐이다.

삼진은 17개로 전체 2위다. 21일 SK전에선 삼진 1개를 포함해 3타수 무안타로 부진했다.

부진한 ‘간판타자’는 또 있다. 한화의 베테랑 김태균은 11경기에서 타율 0.103(규정타석 미달)으로 부진한 뒤 20일 1군 엔트리에서 아예 말소됐다.

누구보다 2020시즌 준비를 성실히 했던 이들이기에 올 시즌 부진은 더 뼈아프다. 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 보청기 보조금 확대 실시

- 와이덱스보청기 기준금액 131만원 중, 90% 지원(1,179,000원 환급)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은 100% 지원.
- 구입일로부터 5년마다 1회, 와이덱스 보청기 구입비 지원
- 15세 이하 아동의 경우, 양측에 와이덱스보청기 구입비 지원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시·군·구에 등록된 청각장애인
- 청각장애 등록증(복지카드) 소지자(1급~6급)

＊와이덱스보청기 구입비 예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64호 인용.

보청기 가격	차상위계층	일 반
정책특가형, 와이덱스보청기 정가 190만원 → 131만원	본인부담금 0원 (100% 건강보험공단 지원)	본인부담금 131,000원 (90% 건강보험공단 지원)

※정책특가형 제품은 위의 표에 설명된 것에 한함.

자세한 사항은 와이덱스보청기 제주센터로 문의하세요.

WIDEX

보청기 구입 요령, 이것만 알면 후회 없다!

보청기, 소음 환경에서도 잘 들리나?

보청기를 사용하며 불편하고 어려웠던 문제는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여러 사람과의 대화가 어렵다는 것과 소음상황에서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다.

조용한 곳에서는 잘 들리지만 주변이 시끄러워지면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 많은 보청기 사용자들의 문제였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와이덱스 보청기는 주변 환경에 맞춰 스스로 소리를 변화시키는 환경 적응형 프로세서를 중저가의 보급형 보청기부터 탑재하여 환경에 따라 잡음은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말소리는 선택적으로 크게 증폭하여 소음상황에서도 대화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말소리를 더 똑똑하게 들을 수 없을까?

대부분의 노인성 난청인들이 겪는 불편은 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지는 문제로 말소리에 대한 변별력이 없다는 것이다. 노인성 난청은 주로 고음의 소리를 감지하는 청각세포의 손상으로 발생한다. 말소리 분별의 어려움을 겪는 난청인은 본인 스스로가 난청인 사실을 인정하기 힘들어 하며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한다. 소리를 분명하게 듣기 위해서는 퇴화된 청각세포로 입력되는 높은 주파수대의 소리를 건강한 청각신경세포에서 잘 들을 수 있도록 소리의 주파수로 대역을 이동시켜, 소리를 듣게 만들어주는 방법으로 주파수전위 기능(Audibility extender)이란 것이 있다.

이는 와이덱스 보청기 만의 고유 기술로서 청각세포 손상으로 명확한 소리를 듣지 못하는 분들에게 적용되어 소리를 듣게 만드는 획기적인 기술이다.

보청기는 어떻게 구입해야 하나?

난청을 느끼고 보청기를 구입 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4년 미만이 전체 46% 정도 되고, 나머지 54%는 5~10년이 지난 후에야 보청기를 착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난청을 방치 후 보청기를 착용하는 경우 보청기를 착용하고도 말소리의 변별력이 좋지 않은 현상이 발생하곤 한다.

이는 뇌에서 어음을 이해하는 부분의 기능저하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난청을 느끼면 보청기 착용 시점을 가능한 앞당겨야 어음변별력이 더 이상 퇴화되지 않게 된다. 또한 잘 듣지 못하는 상태가 장기화되면 본인의 발음 또한 분명하지 않게 된다.

난청이 의심되면 방치하지 말고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난청은 사람마다 그 정도가 달라 정확하게 청력을 맞추지 못하면 소리의 변별력이 떨어지고 소리가 불편하게 들리기도 한다. 따라서 보청기의 제작은 정확한 청력검사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 와이덱스의 전 제품은 컴퓨터와 연결하여 조절하는 디지털 보청기이며, 와이덱스의 센소그램 시스템은 보다 정확한 청력보정 방법으로 청력에 맞춰 소리를 조절하여 좀 더 선명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도와준다.

와이덱스 보청기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한국의료기기 산업협회 광고사전심의 심의번호 2010-GN1160079

WIDEX HIGH DEFINITION HEARING 와이덱스 보청기 제주센터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위치)

상담예약 064)755.1005